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5월 18일(수), 오후 2~4시

백제 지역의 고적조사사업

이 병 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백제 지역의 고적조사사업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주)다원이엔씨 / 055-321-6400

1. 백제 지역 고적조사사업의 흐름

일제강점기 백제 고지에 관한 고적조사사업의 전개 과정은 크게 4시기로 할 수 있다. 1기는 1909년 關野貞 일행의 고적조사에서 시작되며, 광주,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의 도성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기는 1916년 「보존규칙」 시행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조사가 실시되는데, 1기의 도성지에 더하여 나주 지역에 대한 발굴이 추가된다. 고적조사위원회에서 나주 반남면고분군과 같은 새로운 유적을 인지하게 된 것은 식산국 산림과에서 작성한 「古蹟臺帳」과 같은 기초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기는 1920년대 이후 재정적·행정적인 이유로 발굴조사는 침체기를 겪지만, 발굴보고서의 간행과 같은 정리와 유적의 보존이 중심이 된다. 4기는 朝鮮古蹟研究會가 설립된 이후 1935년부터 부여 지역의 사원지에 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백제 고지에 관한 고적조사사업은 도성지 중심의 조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조사와 발굴, 정리 및 보존 활동, 특정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한 조사 등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백제 고지의 고적조사는 고분에 관한 조사가 아닌 부여 지역의 절터가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일본 학계의 飛鳥文化에 대한 관심의 증대,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일본학계의 현안이었던 法隆寺 재건 비재건 논쟁의 해명이라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飛鳥文化의 원류인 백제 사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필요에서 부여의 사원지 발굴에 참여했던 石田茂作은 군수리사지를 비롯한 부여지역 사원지 발굴을 통해 일본 사천왕사식 가람배치의 원류가 백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후 일본으로 돌아가 法隆寺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若草伽藍의 발굴을 주도하게 되었다. 1929년 재단법인이 된 부여고적보존회는 大坂金太郎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부여를 일본과 인연이 깊은 百濟의 舊都로 인식시키고 관광명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한 대내외적인 활동 결과 부여는 일본과 인연이 깊은 곳으로 선전되었고, 1939년 조선총독부에서는 다른 곳이 아닌 부여 지역에 神宮과 神都를 조영하게 되어 부여는 內鮮一體의 靈地가 된다.

2. 부여 지역 폐사지 조사와 일본인 고고학자

일제강점기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한반도에서 행한 고적조사는 그들이 아무리 학문적 순수성으로 포장하려 해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이루어진 부여 지역 폐사지에 관한 고적조사는 조선총독부의 內鮮一體라는 정책과 扶餘神宮 조영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을 고고학적으로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부여 지역 폐사지 조사는 石田茂作이 중심이 된 시기와 藤澤一夫가 중심이 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朝鮮古蹟研究會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石田茂作이 중심이 된 시기이다. 東京帝室博物館은 조선 만주실의 신설을 위해 유물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조선고적연구회에 매년 기부금을 내고 소속 관원들을 파견하였다. 당시 同館의 감사관으로 불교고고학 전문가였던 石田茂作은 飛鳥 문화의 원류의 해명, 그중에서도 聖德太子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法隆寺의 창건 시기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백제 지역 폐사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사에 참여하였다. 그가 직접 조사한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는 일본 초기 사원의 원류를 해명하는데 기여했지만 內鮮一體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자료로 활용되고 유물의 국외 유출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1939년 扶餘神宮 조영이 공표된 이후에는 藤澤一夫가 부여에 상주하면서 폐사지를 조사하게 된다. 당시 부여 지역은 부여신궁과 부여신도건설계획안이 마련되어 ‘內鮮一體의 靈地’로 선전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神都 건설을 위한 대규모 공사에서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의 문제에 대처해야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 사원과 기와 연구의 전문가인 藤澤一夫를 파견하였다. 그는 梅原未治 등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942년 7월부터 부여에 부임하여 부소산폐사지, 정림사지, 구아리사지 등 많은 폐사지를 조사했지만 당시의 조사 내용을 거의 공표하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그의 일기를 보면 그가 일본의 초기사원과 백제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정림사지의 발굴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梅原未治 考古資料 등에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조사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확인된다. 부여 지역 폐사지에 관한 고적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라는 정책과 부여신궁 조영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을 고고학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 것이었다. 당시 발굴한 조사 내용의 미보고와 자료의 독점, 발굴품의 유출 등은 지금도 이 분야 연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이경수, 2009, 「부여지역 근대 박물관의 태동과 국립박물관 부여분관의 성립」, 『부여박물관의 발자취』, 국립부여박물관
- 이병호, 2011, 「日帝强占期 百濟 故地에 대한 古蹟調査事業」, 『韓國古代史研究』 61
- 이병호, 2014, 『백제 불교 사원의 성립과 전개』, 사회평론
- 이병호, 2016, 「식민지기 부여 지역 폐사지 조사와 일본인 고고학자」, 『韓國考古學報』 91
- 조가영, 2012, 「석촌동 고분군의 축조 양상 검토: 고분분포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71

□ 시기별 고적조사 내용과 조사자

1기의 고적조사 지역과 조사자			
충남 부여	1909.11.30.	유인원기공비(甲), 대당평백제탑(甲) 등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충남 공주	1909.12.4.	공산성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전북 익산	1910.12.3.~4.	왕궁평(甲), 쌍릉(乙), 미륵산성(乙), 미륵사탑(甲), 석불리(乙) 등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경기 광주	1911.9.18.	송과, 석촌고분(乙) 답사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경기 광주	1912.9.22.~28.	石村 附近 百濟古墳 發掘	栗山俊一
충남 부여	1915.7월 중순	陵山里 傳 百濟王陵群 발굴(中下塚, 西下塚, 中上塚, 埽牀塚, 割石塚, 橫穴塚)	關野貞, 谷井濟一, 後藤慶二, 黑板勝美
		부소산성, 성흥산성	關野貞, 谷井濟一
충남 공주	1915.7월 중순	공산성	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2기의 고적조사 지역과 조사자			
경기 광주	1916.8.21.이후	백제도성지, 풍납리토성, 石村馬墳, 이성산성, 남한산성 등	今西龍(측량제도원1명, 통역1명 동행)
경기 광주	1917.9.12.이후	풍납리토성, 이리토성, 삼성리토성, 석촌부근고분군 등(고양군 중곡리·여주군 매릉리 고분군 발굴)	谷井濟一(측량원3명 동행)
충남 공주	1917.9.21.이후	공산성 등	谷井濟一(측량원3명 동행)
충남 부여	1917.9.21.이후	부소산성, 나성, 청마산성, 성흥산성, 능산리 傳왕릉, 평백제탑, 유인원비 등	谷井濟一(측량원3명 동행)
전북 익산	1917.9.21.이후	오금산성, 미륵사지, 왕궁탑	谷井濟一(측량원3명 동행)
전북 익산	1917.9.21.이후 ~12.16.	익산 쌍릉	谷井濟一(측량원2명 동행)
전남 나주	1917.12.17.~12.27.	반남면고분군(덕산리4호, 신촌리9호분)	谷井濟一, 小場恒吉, 小川敬吉, 野守健(측량원2명)
전남 나주	1918.10.16.~10.28.	반남면고분군(덕산리1·5호, 신촌리9호, 대안리8·9호분)	谷井濟一, 小場恒吉, 小川敬吉, 野守健
3기의 고적조사 지역과 조사자			
충남 부여	1922.5월	평백제탑 목책 수리, 부여보승회 진열관 참관	小泉顯夫
충남 공주	1923.6월	공주 심상고등소학교 부지 동북쪽 출토 벽돌 구입	조선총독부박물관 구입
경기 광주	1925.9월	풍납리토성 등(을축대흥수)	총독부박물관 수습
충남 공주	1927.3.15.~3.23.	송산리2·5호분, 금정1호분	野守健·神田惣藏
충남 공주	1927~1932	송산리, 교촌리, 금학리 등 738개소	輕部慈恩
충남 부여	1929.1월	부여 객사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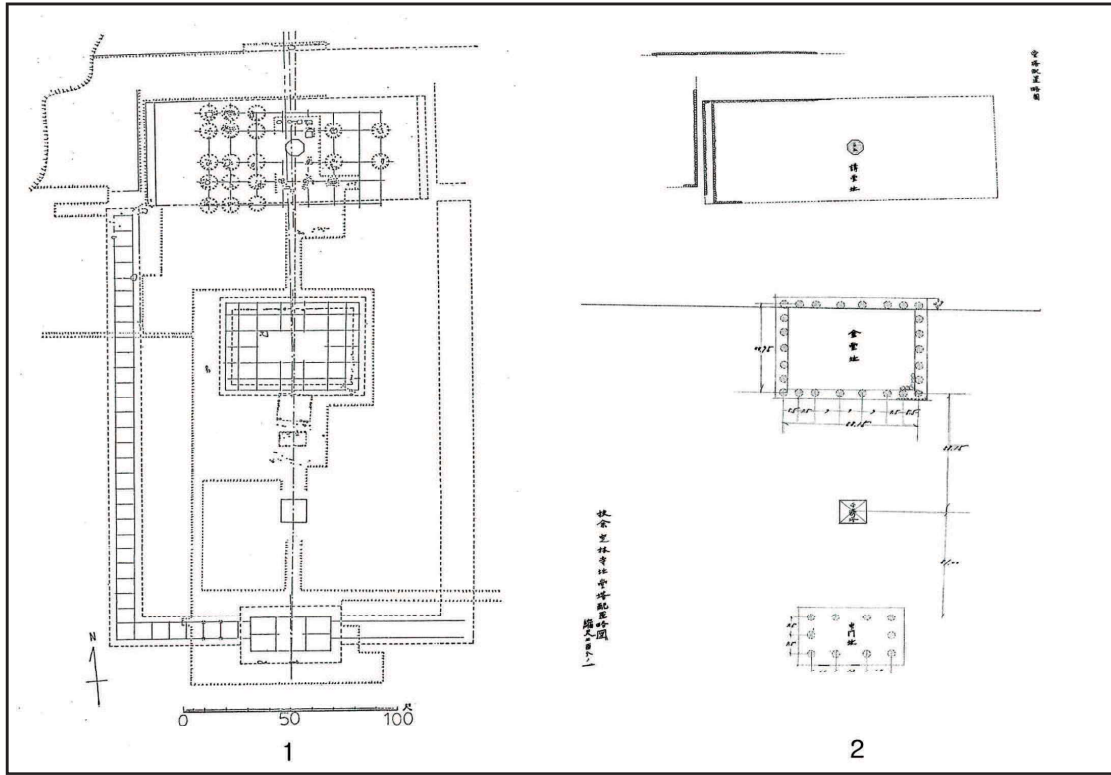
4기의 고적조사 지역과 조사자

충남 공주	1933.8월	송산리6호분	藤田亮策, 小泉顯夫, 澤俊一
충남 공주	1933.11.15.~24.	송산리29호분	有光教一
충남 부여	1935.9.29.~10.11.	군수리사지(1차)	石田茂作, 關根龍雄, 齋藤忠
	1936.9.14.~10.14.	군수리사지(2차)	石田茂作, 關根龍雄, 齋藤忠
	1937.4.8.~5.3.	외리유적	有光教一, 米田美代治
	1937.4.3.~4.15.	능산리 東고분군	梅原末治, 鏡山猛, 澤俊一
	1939.4.1.	충독부박물관 부여분관(관람 허가)	
	1939.4.27.~5.17.	동남리사지	石田茂作, 藏田藏, 齋藤忠
	1939.5.16. 이후	가담리사지	石田茂作, 藏田藏, 齋藤忠
	1939.5.18.~5.28.	나주 반남 고분군	有光教一, 澤俊一
	1939 미상	부소산성	米田美代治, 李鐘國
	1941.6월	쌍북리 요지	米田美代治
	1942.8.30.~9.23.	부소산폐사지(일명 西腹寺址)	藤澤一夫, 米田美代治, 李鐘國
	1942.9.23.~9.27.	구아리사지(심초석)	藤澤一夫
	1942.9.28.~1943년	정림사지	藤澤一夫
	1942.4.~6월	구교리사지	藤澤一夫
	1943.5월	금성산폐사지	藤澤一夫
	1943.6.4. 이후	부소산성 내 고려 유물	藤澤一夫
	1943.11월	구아리사지(부여경찰서 裏庭)	藤澤一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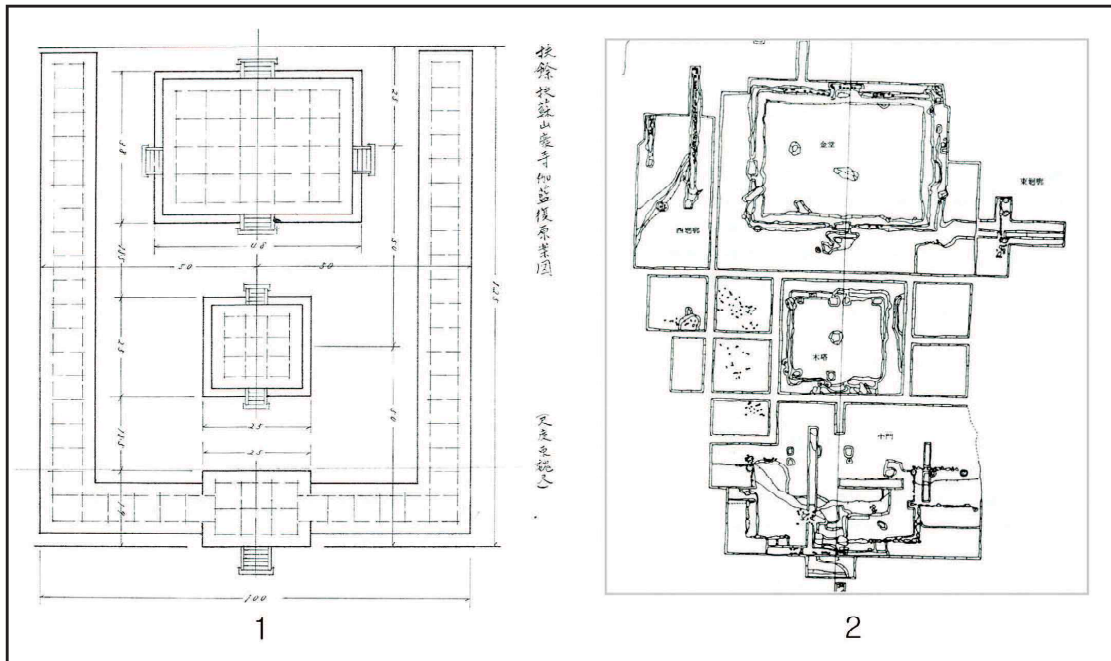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도면1> 서울 석촌동 고분군 분포도(상: 1912년도, 하: 191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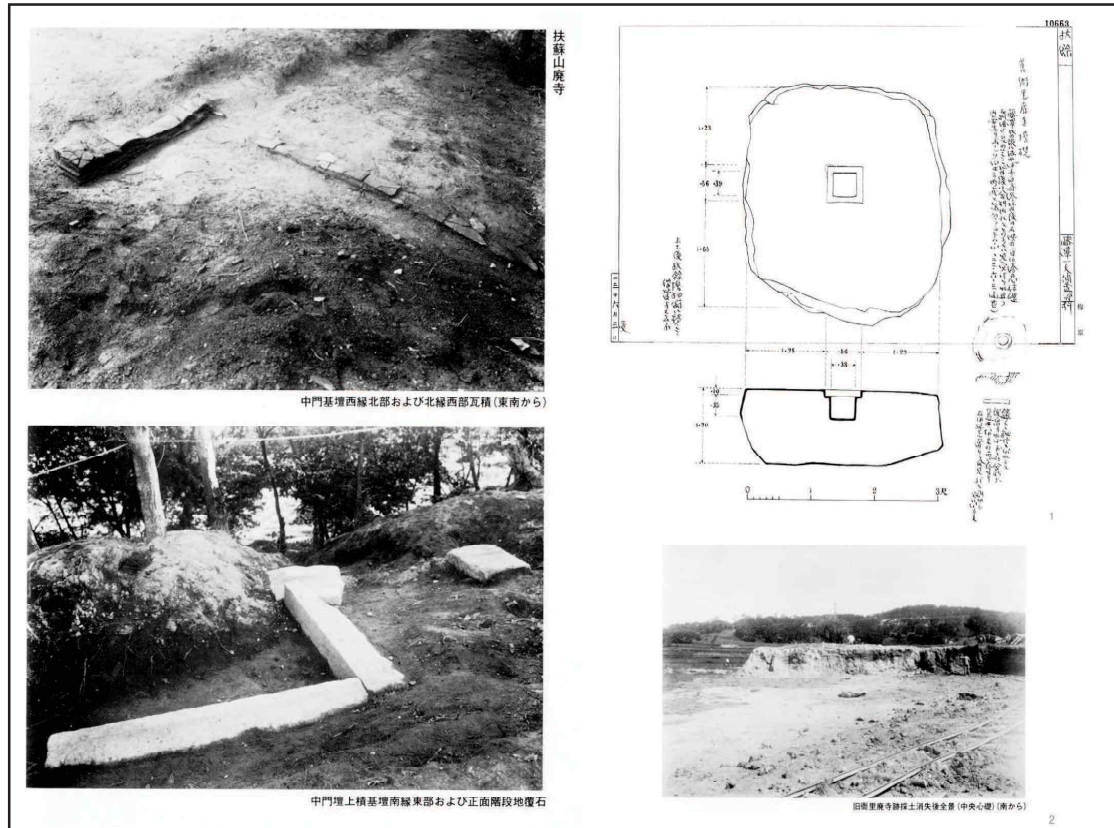


〈도면2〉 부여 정림사지 가람배치도(좌: 1971년 논문, 우: 梅原末治 考古資料)



〈도면3〉 부여 부소산페사지 가람배치도(좌: 1976년 토론회, 우: 국립부여박물관)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도면4> 부여 부소산폐사진 흑백사진과 구아리사지 심초석 도면 및 사진

Note.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1	3.23.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이순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2	3.30.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3	4.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김영민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4	4.20.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장은정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5	4.27.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본 서봉총의 발굴과 유물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6	5.4.	일제강점기 가야지역 고적조사사업	김수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7	5.11.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8	5.18.	백제 지역의 고적조사사업	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9	5.25.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황은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0	6.1.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11	6.8.	일본의 식민지 발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속의 가야	이영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12	6.15.	답사(백제문화권)	윤용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3	6.22.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